

농업·농촌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요약)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지난 1월 25일(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계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생산 인프라 확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어민신문이 주최하고, 국회 농식품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후원하고 약 300여 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성료하였다.

주요 내빈으로는 홍문표 의원(새), 윤명희 의원(새), 김광립 의원(새), 이상길 농식품부 제1차관, 농업관련단체장 등이 참석하였다.

토론내용은 제1주제로 김선주 건국대학교 교수가 “농업생산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식량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 주요 곡물자급률 제고 등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생산 인프라 확충 필요
- 고부가가치 농업생산을 위한 미래형 농산업 생산 공간조성 필요
 - 재배작물의 다양화, 축산, 원예 등 농지의 다원적 활용에 대비
- 이상기후 증가에 따른 농업분야 재해예방 기능 강화

- 노후 수리시설 현대화, 지류지천정비, 배수개선 등 침수예방 사업 확대
-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사로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2주제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쟁력 있는 농업인력 육성과 농촌사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경쟁력 있는 젊은 인력육성
 - 농지은행을 통한 맞춤형 농지지원 및 젊은 세대 농촌유입정책 강화
-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지은행사업 패러다임 전환
 -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기준 현실화, 농지매입 지원 단가조정, 농지은행 사업범위 재조정 등 농지은행제도 개선 및 관련법 개정
 - 전업농가 중심의 농지지원에서 탈피, 다양한 경영체 육성 지원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들녘 단위 “농지이용집적사업” 추진 ㉞